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		연구기관/책임연구원	한국보건사회연구원 /이태진	
부서/과제담당관	자립지원과/김우기과장		담당공무원	이지연 주무관	
연구방식	1. [√] 위탁형 용역		2. [] 공동연구형 용역	3. [] 자문형 용역	
연구자 선정방법	1. [] 일반경쟁계약		2. [√] 수의계약		
연구기간	2016.07.11 ~ 2017.06.07.(11개월)				
연구결과	1]노숙인 등의 규모 및 일반적 특성 (일시집계조사) ○ (유형별) 총 17,532명, 이 중 노숙인 11,340명(거리 2,015명, 시설 9,325명), 쪽방주민 6,192명 - 시설노숙인 중 자활시설 노숙인 1,599명, 재활시설 노숙인 4,290명, 요양시설 노숙인 3,436명 ○ (지역별) 전체 노숙인 11,340명 중 서울시 3,591명(31.7%), 경기도 1,522명(13.4%), 대구광역시 1,092명(9.6%)으로 3개 시도에 전체 노숙인의 과반수인 54.7%가 분포 ○ (성별·연령별) 전체 노숙인·쪽방주민 17,532명 중 남성은 13,339명(76.1%), 여성은 4,117명(23.5%), 미상 76명(0.4%) - (시설노숙) 전체 시설 노숙인 9,325명 중 남성은 6,524명(70.0%), 여성은 2,801명(30.0%)이며 연령별 분포는 50대(33.4%), 60대(27.5%), 40대(17.8%)의 순으로 나타남 - (쪽방주민) 전체 쪽방주민 6,192명 중 남성은 5,004명(80.8%), 여성은 1,188명(19.2%)이며 연령별 분포는 60대(30.8%), 50대(29.0%), 40대(17.2%)의 순으로 나타남 ○ (시설 규모)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중 52.9%(63개소)가 3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, 26.1%(31개소)는 3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시설 ○ (질환유병률) 전체 시설노숙인(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 제외) 중 대사성 질환(18.7%), 정신질환(18.6%), 치과질환(17.1%) 순으로 나타남				
	2]노숙인의 복지 욕구 및 피해실태(면접조사) ① 경제활동 실태 ○ (수입) 전체 노숙인 중 근로활동(34.3%),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(30.5%),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(16.8%) ○ (현재 근로상태) 이용·자활시설은 40% 이상이 근로활동 참여하고 있으나, 쪽방주민(67.8%), 요양시설(57.9%)는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 ○ (욕구)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으로 건강문제(33.3%), 프로그램 없음(29.5%), 취업알선 혹은 구직정보 없음(17.2) ② 건강 및 의료 ○ (질병이환 실태) 대사성 질환(36.1%), 치과질환(29.5%), 정신질환(28.6%), 위장관 질환(13.0%), 호흡기 질환(9.9%), 간장질환(6.2%), 심장질환(6.1%) ○ (장애 상태) 장애인 등록여부를 물어본 결과 29.5%가 등록했다고 응답했으며, 1~3급 비율을 보면 등록된 사람들의 76.2%로 조사됨. ③ 알코올 의존성 및 우울 ○ (문제음주) 전체 노숙인 중 음주자는 약 40%로 이 중, 주 2~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가 거의 30%에 가까웠으며 주 4회 이상, 즉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경우도 음주자의 18.5%로 나타남. - 거리노숙인(70.9%), 시설노숙인(30.7%), 쪽방주민(44.0%) ○ (우울) 시설노숙인의 우울 유병률은 27.7%인 반면, 거리노숙인 69%, 쪽방은 82.6%로 매우 높게 나타남.				
평가결과	•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: 연구계획과 부합 • 추진방법의 적절성: 연구계획과 부합 •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: 연구계획과 부합 •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: 해당 없음 •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: 제2차(2021~2025)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」 수립 등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시 활용				
평가자 확인	구분	평가전문위원		과제담당관	
	성명	서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인회		자립지원과 과장 방석배	
평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7.9.13		장소	복지부 5층 대회의실
	참석자	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구인회 교수 등			